

기관탐방

## ‘2020운동’ CJ(주) 김포공장 건강관리실을 찾아서



김금옥 / CJ(주) 김포공장

올 여름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하고 무더울 것 같다는 일기예보처럼 유난히 더웠던 유월의 초순, 하늘은 한차례 비가 흩뿌릴 것 같이 잔뜩 구름을 머금고 있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비를 대비하여 우산을 챙겨 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CJ(주)김포공장 건강관리실을 찾아보기 위해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1953년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로 출발해 삼성 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자리했던 CJ 그룹은, 1968년 조미료 생산기지인 현재의

CJ(주)김포 공장을 준공하고 이를 발판으로 첨단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CJ(주)김포 공장 40여년의 역사와 함께 건강지킴이로 올해 20년째 CJ(주)김포 공장을 지키는 든든한 보건관리자 김금옥 선생님이 정문까지 나와서 맞아주신다. 건강관리실은 보건과 안전 파트로 나누어진 환경안전팀에 소속되어 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김금옥 선생님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인간공학기사에 도전하고 있는 재원이다.

친절한 경비아저씨의 마중을 뒤로 하고, 아기자기한 나무들이 우거져 정겨운 정원 같은 앞뜰을 지나려는데 김금옥 선생님은 건강관리실로 가기 전 먼저 보여 줄 곳이 있다며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구내식당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미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기에 식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시설을 담당하는 몇몇의 근로자가 선생님과 마주치자 반갑게 대하며 곧 실시될 건강검진에 대하여 질의하는 동안 커다란 현수막이 눈앞에 펼쳐진다. ‘2020운동!’



“2020운동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속으로 되뇌는 순간, 곧 ‘한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고 최소 20분 이상 식사하는 것’이라고 현수막 아래에 또렷한 글자가 한 눈에 들어온다. ‘2020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6년 일반검진의 일환으로 실시한 위장관조영술 촬영자 46%가 위장질환의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또한 위장질환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의 84%가 교대근무자라는 통계결과를 근거로 볼 때 근로자가 불규칙한 식습관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근로자의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2020운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인 건강지원을 계획하게 되었다.

2020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실제 근로자의 식습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20운동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고 추진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식생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타당성 있는 방송내용을 참고로 하여 근로자가 식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교안을 작성하고 본사 직원 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여 전 사원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파악된 유소견자와 상담을 실시하며 일반근로자의 경우 중식 시간에 근로자의 식사시간을 파악, 결과를 식당 게시판에 주별로 기재하여 4주 후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아울러 맞춤형 식단과 소화기기에 좋은 음식에 대한 식단표, 운동요법에 대한 자료 등을 주 1회 개별근로자의 e-mail로 발송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2020운동은 김금옥 선생님이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나타내는 게시판의 현황표만 보아도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부드럽고 세련되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기업이미지처럼 CJ(주)김포 공장의 건강관리실은 근로자를 향하여 언제나 열려있었다. 2004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한국산업안

전공단에서 개최하는 건강증진추진사례 발표대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까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반적인 보건업무에 대하여 CJ(주)김포 공장 건강관리실은 당당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마다 CJ(주)김포 공장 건강관리실에서는 근로자를 위하여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최상의 보건관리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올해의 주제가 '2020운동' 이었던 것처럼 작년은 '금연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여 금연사업을 실시하였다.

어느 사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연사업은 쉽게 실시할 수 없었다. 교대근무 등과 같은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발하는 업무형태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은 CJ(주)김포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사전에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흡연양상을 분석하고 금연선서식 거행 시에는 금연약정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직접 선서하게 하였다. 근로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커다란 스티로폼으로 대형 담배모형도 직접 만들어 담배 자르기 이벤트를 거행하였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하여 근로자가 금연을 결심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주선하고 가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근로자의 e-mail로 주간마다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사원 금연교육을 비롯하여 금연인들의 활동 모습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전사적인 움직임은 흡연 근로자들이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고 동조하기 시작하였고 금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6개월이 지난 후 금연사업의 성공률은

금연결심 근로자의 59%이었으며, 1년이 지난 현재 26%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관리사업 수행 시 결재를 득하기는 쉽지 않지만 효율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면밀하게 준비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부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관건이다. CJ(주)김포 공장 건강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통하지 않는 듯싶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업무 시작 전 자료 수집을 비롯하여 평가하고 피드백을 형성하기 위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미 내년도 사업의 구상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살짝 물어봐도 되냐고 하자,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중·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전 사원 뇌심혈관질환 발병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계획하고 있단다.

제품이 생산되는 현장 안은 건강관리실에서 구상하고 작성한 중량물 취급주의 안내 표지판이 제품 무게에 따라 색깔별로 부착되어 있었고,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발지압판,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기타 보호구 등이 근로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되고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었다. 현장순회를 하는 김금옥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근로자, 발로 직접 뛰며 근로자와 호흡하고 친근하게 생활하는 보건관리자를 보면서 CJ(주)김포 공장 보건관리의 미래를 생각해본다. 역동적이며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 피어나는 꽃잎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자에게 새롭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보건관리를 지향하는 CJ(주)김포 공장의 건강관리실이 든든하게 여겨지기에 훌쩍리는 빛줄기조차 시원하게 느껴졌다.